

‘건축예술’적 관점¹⁾에서 살펴본 북한 공동살림집의 복합성

Urban Communal Housing in North Korea from an Artistic Point of View

신 건 수*

Shin, Gunsoo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formal aspects of communal house architecture in North Korea. It is said that Kim Jong Il, who emerged as a successor after the mid-1970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architecture, leading the construction of a sculptural communal house on Gwangbok Street in 1989, and wrote *The art of architecture* (1992), which theorized architecture as an object of art. Therefore, it is widely perceived that the communal house was transformed from a simple form of living function to an artistic architecture with the rise of Kim Jong Il. This study, however, argues that this change was the result of an internal evolution in North Korean architecture, rather than a simple change in the position of an individual in power. It seeks to move away from the dichotomy that divides the communal house into two periods: the "Kim Il-sung period," in which the communal house was laid out in a simple form to provide mass supply and a socialist lifestyle, and the "Kim Jong-il period," in which the communal house took on an artistic form, such as the Gwangbok Street communal house, in the early years of reconstr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before Kim Jong-il's arrival, the communal house form was not simply a flat arrangement, but a three-dimensional and sculptural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n the cityscape.

주제어 : 공동살림집, 건축예술론, 립체성, 도시경관

Keywords : Urban communal housing, The art of architecture, Three-dimensional effect, Cityscap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 당 중앙이라 불리면서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적이면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학생청년대축전(이하 평양축전)에 건설된 많은 건축물은 김정일의 건축 관점을 잘 드러낸 것으로 소개된다. 김정일이 평양축전 시기 다양한

건축의 대규모 건설을 주도한 경험을 건축미학으로 이론화한 저서 『건축예술론』을 1992년에 출판했다.²⁾ 북한의 공동살림집(공동주택에 대한 북한식 표현) 건축도 예외도 아니었다. 평양축전에 맞춰 세워진 건물들의 사진화보집인 『주체건축의 대화원 3권』(1990년 출간)에 가장 먼저 다뤄진 건축물이 조형적인 광복거리 살림집이다.³⁾ 이러한 인식은 북한건축, 특히 공동살림집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즉 공동살림집은 생활 기능의 단순한 형태에서 김정일의 등장으로 예술적 건축으로 변화되었다고 널리 인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권력자 개인의 단순한 입장이 야기한

* Corresponding Author : ttanc@kyungnam.ac.kr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R1G1A1100167)

1) ‘건축예술’적 관점은 북한 김정일의 건축 저서 『건축예술론』(1992)과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주로 건축 형태에 관한 관점으로, 개별 건물의 입체적 형태와 도시경관 차원의 형태 논리에 국한된 의미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구분된 김정일이 주도한 건축 흐름을 의미하나 본 연구는 이미 존재하던 것의 계승이라고 본다.

2) 『건축예술론』의 진짜 저자에 대해 건축가 이형을 언급하기도 하는데(탈북건축가 대담 2018년 3월 23일), 가능한 추정이지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며 본 논문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저자로 김정일을 다룬다.

3) 『주체건축의 대화원』 1,2권은 1987년에 출간되었으며 1권의 서문은 건축예술론의 저자로 추정되는 건축가 리형이 작성했다.

8 논문

것이라는 이면에, 북한 건축계의 내적 진화의 결과라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 공동살림집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동살림집에서 조형적 형태는 특이한 경우다. 왜냐하면, 공동살림집은 주거 기능으로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른 공간 조직에 중점을 두기에 주로 도시에서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김정일의 등장으로 북한의 건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비반복적”이며 “립체적” 형태, 가로에서 보이는 건물군의 “륜곽선”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볼 때 거리에 따른 경관(원경, 중경, 근경)의 “건축적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건축잡지 『조선건축』은 예술적 형태의 건축을 김정일과 동일시한다.

이 두 측면의 결합, 즉 북한 공동살림집이 도시경관 차원의 조형적 형태와 그 변화가 김정일의 등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북한 내부 및 일반적인 인식이다. 재건 초기에 공동살림집은 대량공급과 사회주의 생활방식을 제공하며 단순한 형태로 배치한 ‘김일성의 시기’와 광복거리 공동살림집등과 같이 예술적 형태를 담은 ‘김정일 시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김정일이 주도한 변화는, 북한이 한국전쟁 직후 주택 표준설계를 통한 조립식으로 대량 건설되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공동살림집(‘김일성 시기’)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김정일의 주된 건축업적으로 창광거리 살림집을 그 출발점으로⁴⁾ 광복거리 살림집을 완성으로 묘사한다.⁵⁾ 그래서 본 연구는 예술적 형태로 표현되는 공동살림집이 김정일의 등장으로 이런 결합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다른 건축적 과정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향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상 김일성시대 공동살림집과 비교되어 김정일 등장으로 시기적 단절을 언급하나 내적 연속성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형태적 특성을 배제한 것처럼 여겨지는 초기 재건시기에 공동살림집에서 도시경관 차원의 조형적 접근이 있

4) 북한 매체에서는 그 시작을 1975년 5월로 특정하고 있다. 당시 료환선 거리의 기존 공동살림집을 완전 철거하고 “살림집혁명을 일으킬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구상”을 제시한 인물이 김정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김유진, “그이는 건축가들의 자애로운 스승”, 『조선건축』, 1995 4호, 5-7쪽). 창광거리는 김정일이 초기에 주도한 것으로, 김일성이 완공된 거리를 살펴보고 “인제야 평생소원이 다 풀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남겼다는 내용이 다수의 문헌에 등장한다.

5) 북한 건축의 변화를 김정일을 다루는 대표적인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만길, 「전환의 시발점」, 『조선건축』 1993 4호, 4-7쪽. 김유진, 「그이는 건축가들의 자애로운 스승」, 앞의 글, 1995 4호, 5-7쪽. 「평양의 모습」, 『조선건축』 1995 4호, 9-15쪽. 최웅술, 「건축적다양성 보장문제의 독창적인 해결」, 『조선건축』 2006 4호, 33-37쪽, 리형, 「건축의 영재」, 천리마, 1985년 7호(24-25쪽) 및 8호(41-43쪽).



그림 1. 광복거리 지도하는 김정일(좌)(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및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표지(우)

었음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공동살림집의 변화가 특정 인물이 주도한 급작스런 변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공동살림집을 관통하는 다양한 층위들을 가로 지르는 진화의 결과물로 전제한다.

1-2. 연구 관점과 방법

1-2-1. 연구 관점 및 기존 연구

본 연구는 한 인물 혹은 이념적 차이로 건축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즉, 북한 공동살림집의 변화를 북한 출간물처럼 김정일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독재국가여서 김정일의 개입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는 입장과 다르다. 그래서 북한 공동살림집을 이해하는데, 지도자의 정치적 영웅 서사물 혹은 반대로 극장 국가라고 규정하는 관점이 아닌 복합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보다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영도자이든 독재자이든 한 지도자의 의지가 모든 변화의 저작권자처럼 여기는 방식은 이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언급한 저자-기능(la fonction-auteur)⁶⁾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저자의 이름은 매우 기능적으로 작동하는데,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저자의 존재로 부각된다. 그 과정에서 저자의 존재는 고유한 내적 질서로 해석되며,

6) 푸코에 따르면, “저자라는 이름은 지명된 개인과 관계하나 그것과 다르게 저자의 이름은 매우 기능적으로 작동한다. 즉, 한 저자의 여러 텍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저자의 지속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개념적, 이론적, 양식적 일관성을 부여하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이런 저자 개념을 통해 다른 저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고 그의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 경계를 형성하며 특유의 내적 질서로 해석되고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런 저자의 기능이 북한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한다 볼 수 있다. 미셸 푸코, 장진역 역, 「저자란 무엇인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0

그 속에 존재하는 상이한 내용이나 층들은 부차적으로 취급받거나 배제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공동살림집과 문헌에서 매우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즉, 공동살림집과 건축예술의 조합을 가능하게 한 김정일이라는 저자의 존재는 그 내부에 많은 모순과 복잡한 요소들을 가렸다. 또한 『건축예술론』뿐만 아니라 다른 출간물도 김정일이란 인물이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서 변경됐다는 관점은 그 안에 다양한 건축이론과 수많은 건물을 단순 논리로 해석하도록 독자를 묶어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김정일-저자의 기능으로 북한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고자 한다. 언뜻 보기에 일관된 것처럼 보이는 논리 내부에 숨겨진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건축예술론』에서 그 예술적 대상이 되는 건축을 2종류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우선, ‘조선식’이라 지칭되는 예술적 건축은 전통 가옥의 지붕이나 기둥의 형태를 차용하는 방식이라면, ‘현대식’이라 지칭되는 건축은 평양축전(1989)에 외국인들을 수용하면서 건설된 건물들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의 추상적 조형 형태를 의미한다. 이 둘의 구분은 시기적으로 앞선 시기에 ‘조선식’, 김정일 등장 이후가 ‘현대식’이다. 그리고 지향점도 명확한데, 조선식 건물은 과거의 “건축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정될 뿐이다. 조선식인 “옛 건축물이 있을수록 현대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⁷⁾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은 ‘현대식’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도시-가로-건축 차원의 립체적이고 비반복적인 건축이 된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의 건축 형태는 시기적 단절이 아니라, 동시에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식’에 대한 논의가 ‘조선식’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다. 본 논문은 공동살림집 건축을 대상으로 이런 과거-현대 이분법적인 구도를 벗어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공동살림집 형태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이제 공동살림집 연구 자체가 초기 단계이다.⁸⁾ 북한의 건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으며, 문서접근도 상당히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기본적으로

김정일이 추구한 건축예술 논리와 실제 나타난 공동살림집간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었다.⁹⁾ 이러한 방식은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김정일의 건축예술 논리를 파악하거나¹⁰⁾ 실제 건물의 일치를 찾아 북한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반면, 본 연구는 북한 공동살림집 건축에 나타나는 복잡한 양태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의 불일치나 모순을 두 시기의 문헌 비교를 통해 추적한다.

1-2-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출간한 문헌을 분석한다. 김정일의 저작뿐만 아니라 북한 공동살림집에 대한 건축잡지 및 문헌자료 또한 대상이 된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저자-기능에 따라 주요한 업적은 지도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데 특히 건축미학에 관련한 논의는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이 기본적이며, 그 세부 보완 설명은 여러 백과사전(『조선대백과사전』, 『광명대백과사전』 등) 및 잡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복거리 살림집에 대한 연구는 사진과 설명이 풍부하게 소개된 잡지 『조선건축』¹¹⁾과 사진집 『건축의 대화원3』 등의 저작물을 분석했다. 반면 1950-60년대 공동살림집 및 건축 상황은 잡지 『건축과건설』¹²⁾과 단행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김정일-저자의 건축 입장이 작동하기 이전이라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두 시기 자료에서 서로 상이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한 공동살림집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1950-60년대 대량으로 공급된 공동살림집의 실용적 측면과 함께 미학적 특성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다양한 담론이 김정일 시대의 문헌에서 배제되었거나 김정일-저자의 예술 논리로 흡수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광복거리 살림집을 설명하거나 『건축예술론』에서 새로운 이론처럼 주장된 내용이, 이미 과거에 존재

7) 김정일,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90쪽. ‘조선식’과 ‘현대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하라. 서명수, 「20세기 후반 북한 건축의 ‘주체건축’에 대한 비평적연구-『건축예술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8, vol.34, no.6, 통권 356호

8) 도시공동살림집에 관한 연구는 우선 2017년 생활조직원 소구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2018)가 있으며 생활방식과 건설방식에 대한 다음 연구(Gunsoo Shin, Inha Jung,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in *Journal of Architecture*, 21(2):159-180)가 대표적이다

9) 정인하, 김민아,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9, vol.35, no.10, 통권 372호

10) 서명수, 「20세기 후반 북한 건축의 ‘주체건축’에 대한 비평적연구-『건축예술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8, vol.34, no.6, 통권 356호

11) 북한 건축잡지 『조선건축』은 1980년대 말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출간되고 있다.

12) 『건축과 건설』은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로 1955년 12월 1일 창간되어 1968년 3호까지 발간되었고 4호부터는 잡지 이름이 건설로 변경되었다가 “건축과 건설”로 발행되는 잡지이다.(『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554)

했던 것임을 다수 추적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공동살림집의 내부 평면이나 건물 배치로 파악되는 공동생활방식을 다루지는 않는다.¹³⁾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본 연구는 북한 특유의 공동주택 건물을 도시경관의 조형 요소로 사용한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두 번째는 1970-1980년대 사이의 공동살림집의 변화양상을 다루지 않는다. 이 시기는 광복거리 살림집의 건축 형태가 도출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이나 본 연구는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이기에 해당 내용은 후속 연구로 남긴다.

연구는 우선 북한에서 ‘건축예술’(『건축예술론』 속 논리)의 관점에서 광복거리 살림집을 비반복적 형태논리(‘건축형성’)와 도시경관(‘도시형성’ 및 ‘가로형성’)으로 검토하고 나서, 김정일 등장 이전인 전후 재건 시기 대량 건설된 공동살림집 건축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두 시기의 공동살림집의 형태 만들기와 구성 논리에 대한 비교가 중심이다.

2. 건축예술과 광복거리 조형건축

2-1. 도시경관에서 공동살림집의 형태 미학

공동살림집을 어떻게 예술적 측면으로 이해할 것인가?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을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뤄진 평양축전(1989년)¹⁴⁾ 직후인 1992년에 건축을 예술로 바라본 관점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건축의 본질적 속성은 “실용성과 사상예술성”으로 정의된다. 실용성은 사람의 물질적 요구와 관련되는 속성이며 사상예술성은 사람의 사상미학적요구와 관련되는 속성이다.¹⁵⁾ 공동살림집으로 보면 생활방식을 담는 내부 공간이나 소구역(북한식 단지구성)이 실용성에 관계된다면,

건축의 조형적 형태는 ‘사상미학적요구’와 관련된다.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의 건축 형태는 어떤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북한 자료에서 광복거리 살림집¹⁶⁾ 개개 건물마다 설명하는 대신 포괄적인 묘사, 그리고 건축 전반에 예술적 건축의 이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현대식’으로 건설된 살림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건축예술론』에서는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의 조형 형태를 다음과 같이 직접 서술하고 있다. “광복거리 건축형성에서는 기본 구성단위인 살림집의 형태를 원통형, 바람개비형, 다각형, 영어 ‘에스’자형, 계단형” 등으로 건축 형태의 “비반복성”이 구현되었다.¹⁷⁾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을 ‘현대식’ 건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개별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도시건축’의 관점도 중요하다. 『건축예술론』에서 언급한 ‘도시건축’은 『광명백과사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즉,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이 건축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결합되어 일정한 사상예술적 내용을 보여주는 모양새 또는 그러한 모양새를 창조하는 과정을 말한다.”¹⁸⁾ 즉, 건축은 도시적 관점에서 구성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도시 측면에서 “건축은 시간예술”¹⁹⁾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하며, 그 내용은 “사람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조형적 효과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의 머리 속에 하나의 표상으로 묶어지게” 된다. 또한 거리의 차원으로 볼 경우 “먼 거리에서 건축물에 접근해 옴에 따라 건축물의 륜곽선의 조형적 효과로부터 건축세부 요소의 조형적 효과와 마감감재의 질감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²⁰⁾

이러한 개별 건축의 형태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의 효과에 대해, 『건축예술론』에서 도시, 가로, 건축을 단계별로 언급한다. “건축군과 거리, 도시 형성에서는 매개 건축물이 하나의 구성요소 또는 구성단위”이며²¹⁾, “건축가의 독창성은 도시형성에서 개별적인 건축물의

13) 『광명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 2011)에서 살림집 항목은 전적으로 주거 내부의 생활과 내부 평면구성과의 상관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조형관점에서 공동살림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시 건축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기에 분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을 참고하라 “제1절 살림집”,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pp. 495-499.

14) 평양축전은 서울에서 열린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자급받아 북한이 국가적인 역점 사업으로 중점을 두어 성대(177개 국가, 22,000명이 참가)하게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의미한다. 당시 행사를 위해, 대규모 경기장(청춘거리 체육시설, 5.1 경기장 등), 공연장(평양 국제영화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등) 그리고 숙박을 위해 광복거리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15) 김정일, 앞의 책, 11-2쪽

16) 광복거리 살림집은 평양축전에 참가한 외국인 숙소로 건설되었으며, 나중에 북한 주민이 입주했다. 평양 시내의 북쪽에 위치한 만경대 지구에 있는 일종의 신도시 계획이다. 6km 길이와 폭 100m가 넘는 대형 가로인 광복거리의 양쪽에 모두 9개의 구획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 공사(1986-1989년)로 25,000세대 건설했으며, 평양축전 이후 2단계(1990-1992)로 10,200세대가 건설되었다.

17) 김정일, 앞의 책, 141쪽

18)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0쪽

19) 김정일, 앞의 책, 14쪽

20) 김정일, 앞의 책, 122쪽

21) 김정일, 앞의 책, 128쪽

특색을 살리면서도 전반적인 건축형성의 조화를 완성” 하는 것이다.²²⁾ 구체적으로 조선대백과사전은 이러한 단계를, 도시형성건축, 거리형성건축, 건축형성으로 명확히 구분하며²³⁾, 광복거리 살림집 역시 이 차원에서 역할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2개 절에서 도시경관(도시와 거리 차원)과 건축형성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2-2. 도시경관: 도시건축형성 및 거리형성건축

북한식 표현으로 ‘도시건축’은 개별 건축물 그 자체의 상징적인 형태보다, 건축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이는 도시 경관 효과를 의미한다. 일정한 거리에서 구성된 건물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형태는 독자적인 특성보다는 경관적인 고려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런 건축을 ‘현대식’이라고 표현한다. 북한에서 경관 차원의 건축 논리는 ‘도시형성건축’과 ‘건축거리형성’으로 설명된다.

우선 북한에서 ‘도시건축형성’은 형태적으로는 “도시가 통이 크고 깊이가 있으면서 다양성, 통일성, 립체성이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전경과 도시륵곽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전경은 “도시형성요소들이 넓은 공간에 펼쳐진 건축적 풍경”으로, “일정한 거리와 공간면적, 효과적인 시점 높이를 가지며 전망이 트이고 눈앞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 차원에서 볼 경우 건축물들을 통해 “도시중심부와 주요부의 형성이 명확하고 주변과의 호상 통일적인 조화를 이루게” 한다. ²⁴⁾ 도시륵곽은 “하늘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도시형성요소들의 륵곽”이다. 그 요소들은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 따라 도시륵곽의 보임효과”가 달라진다.²⁵⁾ 도시륵곽형성에서는 배경 앞에 놓이는 도시형성요소들이 일정한 거리와 공간면적, 효과적인 시점 높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망이 트이고 눈앞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먼 거리에서 도시를 바라볼 경우 보이는 건물군과 나머지 빈공간을 의미한다. 한편, 광명대백과사전은 구체적으로 나누어 거리별(500-700m, 1000-1200m, 2000m정도, 2500m이상)로 건축이 보이는 윤곽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²⁶⁾

가로경관 차원의 건축구성을 의미하는 ‘건축거리형성’은 “거리를 이루는 요소들이 건축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결합된 모양새 또는 그러한 모양새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로차원에서 건물을 조성하는 방식이기에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며, “건축적인 축을 형성하고 중심부와 주요부”를 부각한다. 가로에 따르기에 “고정된 위치에서가 아니라 시점의 이동에 따르는 건축형성장 효과”로 형태를 만들게 된다. 거리에 면한 “주요 건축군들은 서로 연결”하며, “살림집과 함께 여러 가지 공동문화건물과 봉사건물, 경공업 공장, 소건축물과 시설물이 배치”한다. 거리에서 “입구부분의 건축선 사이를 넓히고 비교적 덩어리가 크고 인상적인 건물을 배치”하여, “깊이와 웅장성을” 나타낸다.²⁷⁾ 한편, 건물의 배치는 거리의 위계(주 간선도로, 구역간선도로, 구획거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²⁸⁾

위에서 언급한 도시와 가로 차원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광복거리 살림집에서 나타난다. 사실 광복거리에는 기념비 역할을 하는 문화 시설인 교예극장이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있지만 규모와 인지 측면에서 살림집에 못 미친다. 이런 기념 건축은 다른 여러 건물과의 관계로 도시경관을 만드는 살림집 형태와 차이를 지니는데, 단독 건물로 특정 상징 형태를 드러내며 주변 건물을 배경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도시건축’이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공동살림집 건축이 더 부합한다.

북한이 출간한 건축사진집인 『주체건축의 대화원3』과 잡지 조선건축에서 도시경관(‘도시건축’) 구도의 사진이 다수 나타난다. 또한 광복거리 살림집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김정일의 개입으로 100m의 폭을 지니며, 가로 길이도 매우 길어 도시와 가로 차원의 경관 특징이 잘 드러난다. 광복거리는 거대한 거리 폭 만큼 “층수가 높은 건물들”로서 “통이 크고 웅장화려하게 형성”되었다. 여기서 실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공동살림집이다.

큰 요소들의 륵곽“, ”1000-1200m정도의 거리에서는 건축군들의 륵곽 잘 나타나고 건축물들의 밝은 색이 보이며 투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며“, ”2000m 정도의 거리에서는 전체 건축군의 륵곽을 평가할 수 있고, 건축물의 색은 거의 다 같은 색으로 보이며, 2500m이상의 거리에서는 도시의 전체 륵곽만“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1쪽)

27) 『조선대백과사전』, 앞의 책, 476쪽

28) 광복거리의 경우 가로 100m 폭을 지닌 간선도로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전체 9개 구획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사이를 구획거리가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22) 김정일, 앞의 책, 128쪽

23) 『조선대백과사전』, 앞의 책, 559쪽.

24)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1쪽

25)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1쪽

26) ”500-700m정도의 거리에서는 개별적건축군들과 구조물들의 색과



그림 2. 대동강 상공에서 본 광복거리(좌) 광복거리와 주변 공동살림집(우, 아래 좌측에 평교역극장이 보임)(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주체건축의 대화원3』에는 각 구획별 배치도가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는 살림집 건물의 표시를 건물의 층수로 표시한다. 즉 ‘주-30’이라 표시되면 해당 건물은 주거용 살림집이며 층수는 30층이 되는 것이다. 여러 다양한 건물 중, 8구획의 42층 초고층살림집이 가장 크다. 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덩어리도 크다. 평양 중심부에서 광복거리의 초입부에는 20층의 꺾인 형태와 30층의 탑형 공동살림집(남한의 탑상형 아파트이며, 탑식주택이라고도 불림)이 ‘깊이와 웅장성’을 나타낸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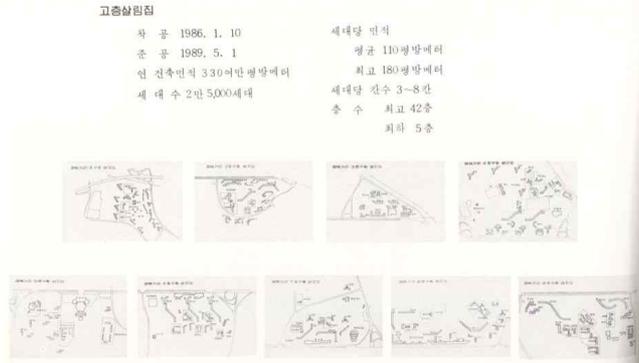


그림 3. 광복거리 살림집 배치도(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2.3 건축 형성

광복거리의 “건축물을 사방에서 보기 좋게 배치하여 거리형성의 립체성”이 있도록 하는 데 있다.³⁰⁾ 건축형태 구성방식에 대한 설명은 『건축예술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광복거리 살림집만이 아닌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이 형태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건축형태구성에 흔히 적용되는 기본조화수단은 대칭과 비대칭, 비례, 룰동, 대조와 은근한 차이, 척도이며 보조조화수단은 질감, 색, 장식, 명암, 조명 같은 것이다.”³¹⁾ 이런 수단들은 개별건축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

29) 『조선대백과사전』, 앞의 책, 478쪽

30) 김정일, 앞의 책, 142쪽

31) 김정일, 앞의 책, 133쪽.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내기보다는 도시 경관상 효과를 내는 요소들이다.

건축조형의 주 원리로 소개된 이 5개는 체계적인 것은 아니나 광복거리 살림집 형태를 파악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가로변에 늘어선 건물들은 개별 형태는 앞서 언급한 “원통형, 바람개비형, 다각형, 영어 ‘에스’자형, 계단형“인데, 개별 건물 각각은 조각품처럼 입체적이며, 가로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보거나 멀리서 조망하게 되면 5 요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대칭이 명확한 건물과 반대로 비대칭인 건물이 공존하고 있으며, 건물들이 크기나 형태가 달라서 비례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어느 살림집은 동일한 건물을 붙여서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게 하거나 동일 건물을 배치간격을 두어 율동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수평과 수직, 곡선과 직선, 낮고 높은 차이들이 대조적이기도 하며, 형태를 변별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은 큰 덩어리로 보이다가 얇고 가는 요소를 삽입해서 척도로 구분되는 방식도 다수 적용되었다.³²⁾



그림 4. 광복거리 살림집 형태(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광복거리 살림집에서 보조요소들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³³⁾ 그 중 특히 색채가 두드러진다. 살림집들은 건축형태 자체를 위해 단색으로 마감했다. 거리에 면하는 건물은 “흰색으로 마감하고, 거리면에서 좀 떨

건축조형에서 대칭이 “단정하고 정결한 감”을 자아내는 수단이라면. 비대칭은 “부드럽고 우아한 감과 운동감을” 만드는 수단이 된다. 광복거리 살림집들에 이런 대칭건물과 비대칭 건물이 교차되며 반복된다. 비례는 “건축형태의 길이, 너비, 높이, 형태의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사이의 크기 관계”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규정된다. 룰동은 “건축요소와 그 간격의 반복이나 교체로 일정한 장단을 조성하여 운동감”을 만드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공동살림집에 많이 적용된 “공업화되어 조립식 건설”에서 반복요소를 이용하는 룰동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대조와 은근한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반대되는 조형 요소의 대비와 약간의 차이를 지닌 조형요소의 대비효과이다. 대조가 “실체적인 크기보다 저 크게 보이고 작은 것은 더 작게” 보이는 효과를 지닌다면, 은근한 차이는 조금 다른 차이로 “서로 다른 조형적 느낌”을 주도록 한다. 마지막 척도는 “건축형태의 전체와 부분사이의 형성체계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굵은 척도는 무거운 감, 웅장성, 장엄성을 표현하는데 쓰이며 잔척도는 가벼운 감, 아기자기한 감을 표현하는데 쓰인다.”(134-5쪽)

32) 『조선건축』에 광복거리 살림집 건설 직후인 1990년 수록된 글에서 외부건축형성에 대해 수직, 수평, 다양성, 입체성에 대한 설명은 『건축예술론』과 유사하다. 다음을 참고하라. 김지향, 「광복거리살림집 건축형성」, 『조선건축』, 1990, 3호, 78-9쪽

33) 『건축예술론』에서 보조요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질감, 색, 장식, 명암, 조명”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하는 것처럼 건축형성에서 보조조화수단이 된다.(김정일, 앞의 책, 136쪽)

어진 살림집들은 연회색으로 마감하였다.” 이와 반대로 살림집 하부 저층을 이용하거나 독립되더라도 낮은 층수로 된 봉사건물은 대비되도록 “강한 색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살림집 전반이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게 하였다.”³⁴⁾



그림 5. 광복거리 공동봉사당 사진(좌)과 디자인안(우)(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의 “건축형성은 단순히 건물의 자리나 잡아주고 층수나 규정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건축창조의 한 분야”³⁵⁾로서 비반복적 예술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는 없다.³⁶⁾ 건축형성차원에서 공동살림집은 자체의 기능이나 의미를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에서 개별 건축이 형태적 조형 효과를 내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동살림집의 조형적 형태는 기념 건축의 형태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기념 건축이 ‘대상 건축’이라 명명되면서 고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형태를 통해 의미 부여한다는 점에서 살림집 건축과 큰 차이를 지닌다. 예를 들어 광복거리 기념건축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북한이 건설한 ‘현대적’ 기념비 건축의 단면을 보여준다. 과거 직접적인 아이콘(신고전주의 혹은 조선식)으로 직접 표현하던 것에서, 건축 기능(내용)을 건축 형태로 드러낸다. 즉,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키우는 당의 품”,³⁷⁾ 즉 두 팔로 감싸는 형태를 통해 입구에 들어온 학생 및 소년을 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와 달리 상징성의 기념비 건축이 아닌 공동살림집은 외부 형태 만들기는 자체의 목적(주거 생활)과 관계없는, 개별 건물의 비반복적 건축형태와 도시경관(도시와 가로)에 맞춘 건축형태를 통해 “건축효과”를 추구한 건축예술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광복거리 살림집은 조형적 형태를 도시차원과 가로차원으로 보는 관

점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개별 건물차원에서 자체적인 조형 방식을 탐색한 결과이다.³⁸⁾



그림 6. 광복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전경(좌)과 가로에 공동살림집과 함께 좌측 하단에 위치(우)(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3. 재건시기(1950-60년대) 공동살림집의 이중성

3-1. 재건시기 도시 배경으로서의 공동살림집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진후 복구의 핵심 중 하나가 공동살림집이다. 전후 초기에는 소련의 신고전주의 영향 하에 바로크식으로 장식된 살림집 건물을 일부 건설했으며³⁹⁾ 그 외관은 “일반공공건물들과 같이 고전적인 장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였다.⁴⁰⁾ 하지만 1950년대 말 공동살림집 건설의 주된 흐름은 통상 평양속도라고 알려진 대규모 건설이었다. 이는 전쟁의 폐허에서 빠른 복구를 위한 조치로, 건물 자체에 미학적 고려는 거의 없었다.⁴¹⁾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을 전수받아, 표준설계와 조립식공법을 통해 대량주택 공급을 추구했다.⁴²⁾ 평양속도는 한국전쟁 직후 대규모 공동살림집 건설을 하면서 천리마운동이라 불리는 비숙련 인력의 대량 동원하여 부재를 조립하여 동일한 건물을 반복적으로 건설하였다. 1950년대 말에

38) 조금 더 자세히 광복거리 살림집은 ‘현대식’과 도시경관의 교집합 역할을 한다. ‘조선식’도 아니고, 단순 형태의 기능적인 공동살림집도 아니며, 내적 기의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같은 기념비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적 기능인 주거와 관계없이 도시경관 측면에서 형태적 결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기능에 따른 단순한 형태나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아이콘(icon) 혹은 상징(symbol) 대신에, 도시 차원에서 건축을 다루어 조형적 형태가 주는 효과를 다루는 ‘현대적’ 건축인 셈이다.

39) 대표적인 건물로는 1954년에 평양의 현 김일성 광장 노동자 아파트가 있었다. 또한 나중에 창광거리로 변경되는 료환선 거리에서 저층의 공동살림집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설되었다.

40) 배세혁, 궁석철, 앞의 글, 49쪽

41) 북한의 공동살림집 구분에서 1960년대 초-1970년대 초는 살림집 외부마감도 “구조재료의 표현”으로 장식이 거의 없다고 본다.(배세혁, 궁석철, 『해방후년대별 우리나라 살림집의 건축마감장식 및 마감색변화발전의 특징』, 『조선건축』, 2013년 4호, 49쪽)

42) 해당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Gunsoo Shin, Inha Jung,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in Journal of Architecture, 21(2):159-180

34) 김지향, 앞의 책, 79쪽

35) 김정일, 앞의 책, 129쪽

36) 『광명대백과사전』에서 건축물을 분류하면서 기능상 살림집을 서술하면서 어떤 미학적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광명대백과사전』, 앞의 책, 494-499쪽)

37) 주체건축의 대화원3, 앞의 책, 458 쪽

이미 평양 중심부는 대량 건설된 5층 내외의 공동살림집으로 가득했으며, 상당수는 현재 그대로 존재한다.



그림 7. 1950년대 평양에 대량 건설된 공동살림집 전경(출처: 『노동신문』1958년 11월 2일(좌) 및 『건축과건설』1960년 6월호(우))

한편, 당시 1950년대 후반 이후 1960년대의 건축의 미학적 고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호인 “사회주의적 내용 민족적 형식”으로 압축된다. 건축에서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민족적형식’으로 전통의 재해석한 ‘조선식’에 적용되었는데, 거기에 공동살림집은 대상이 아니었다. 공동살림집은 이런 ‘조선식’ 기념비(평양 대극장, 옥류관, 모란봉극장 등)나 그에 앞서 소련의 영향으로 초기에 건설된 서양 고전양식(조선혁명박물관, 노동당 청사, 평양역사 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의 역할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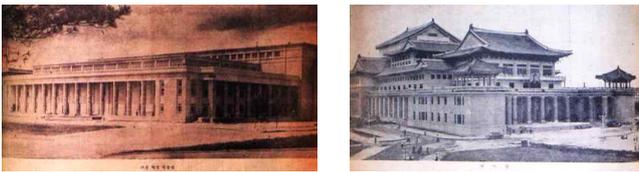


그림 8. 서양 고전양식인 조선혁명박물관(좌), 조선식 건축인 평양대극장(우)(출처: 『건축과건설』1960년 8호)

북한에서 1950년대 말부터 공동살림집을 배치하는 방식을 요약하면 주택 소구역 계획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된 도시공동주택 구성 방식으로, 1958년 소련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연맹(UIA) 대회 이후 널리 소개되었다. 소구역을 주거 생활의 기본단위로 생활조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소구역은 기본적으로 15-30ha 면적에 인구 500~1000명의 범위 내에서 조성되었으며,⁴³⁾ 소구역 내 주거생활 구성은 매우 세밀하게 조직되며 발전해왔다. 주택 소구역에 관한 핵심저서인 「주택 소구역 계획」(1963)에서 가로 중심의 건물 배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이는 소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구역의 결합단위인 주택구역(인구 4-5만명)⁴⁴⁾ 규모에서 다뤄진다. 이러한

43) 리순건, 백완기, 『주택 소구역 계획』, 국립건설출판사, 1963년, 44쪽

44) 한편 북한에서는 당시 주택구역 2-3개 조직한 거대 단위를 주택지역(인구 10-15만)이라 불렀다. 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56쪽

주택구역의 중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도시의 건축적 구성의 골간을 형성”하면서 “가로의 양쪽에 건설되는 건축물들은 충분히 통일된 건축적 외형을 가져야 한다.”⁴⁵⁾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공동살림집이 주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심부 등 중요 위치에 주기적으로 필요한 봉사기관에 해당되는 문화·체육·녹지, 상업·체신·수리소·경공업, 그리고 병원의 3종류가 배치되는 것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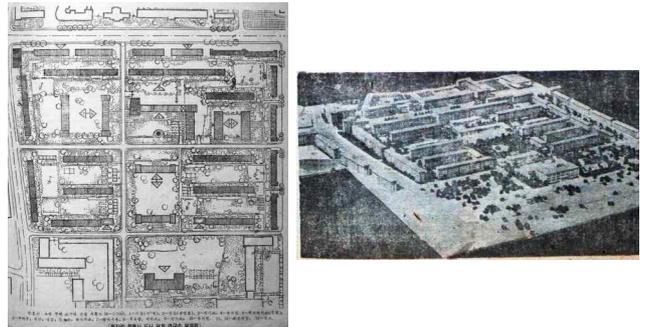


그림 9. 함흥시 모범소구역(좌), 주택 소구역 사례(좌)(출처: 『건축과건설』1959년 2호 및 5호)

3-2. 공동살림집의 경관 역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공동살림집을 미학적 형태를 고려한 내용이 동시대에 나타났다. 공동살림집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전경의 역할로 고려되었다. 즉, 기념비 건물에 나타난 ‘조선식’ 혹은 ‘서양 고전식’의 성격과 다른 도시 경관적 요소로서 공동살림집이 형태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북한의 건축전문 잡지인 『건축과건설』에서 살림집 거리에 가로 경관을 도입하는 의견이 1950년대 말에 나타났다. 초기 표준설계도와 조립식공법으로 대량으로 공동살림집으로 건설된 가로가 지닌 단조로움이 문제였다. 문제의 원인은 “단일한 표준 주택 설계를 적용한다하여 평면배치에만 치중하고 입체적 구성에 고려를 적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⁴⁷⁾ 즉, 단조로운 형태의 반복이 만들어 주요 지적

45) 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112-113쪽

46) 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109-111쪽. 소구역에 배치된 봉사기관(서비스 시설)은 매일 이용되는 것이라면 주택구역은 주기적 봉사에 해당되며 문화·체육·녹지, 상업·체신·수리소·경공업, 그리고 병원지역 등 3 종류로 나뉜다. 이들은 주택 구역 공공 중심은 분산배치 대신에 집중하여 소구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공공봉사를 “도시 중심부의 건축 형성과 관련된 체제에서 구상”하는 것이다. 이런 주택 구역의 중심 지역 조직하는 방식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방 산업 공장과 모든 문화 생활 봉사 기관들을 집중”하는 면적 배치방식이라면 두 번째가 주택 구역의 중심을 “간선 가로 혹은 주택 구역의 중심의 조용한 주택 가로를 따라” 배치하는 방법이며 “최근까지 많이 적용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다.

47) 한창석, 『평양시 가로 구성에 대한 나의 의견』, 『건축과건설』, 1959년 4호, 39쪽

문제는 광장이나 로터리 등의 모서리에 면하는 건물이 “강조”되지 않거나, 매우 수평으로 긴 건물이 단순한 벽으로 끝나는 경우다. 제안된 해결 방식은 모서리에 큰 건물을 강조하여 건설하거나 긴 건물 중간 부분을 일부 후퇴한 것이다.⁴⁸⁾ 따라서 『건축예술론』에서 핵심 개념인 “립체성”이 이 시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공동살림집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건물 배치 방식에서는 가로에 면하는 가로식 배치보다 직교하여 배치하는 행렬식(병렬식과 같음) 배치를 추천하고 있다.⁴⁹⁾ 또한 이는 김정일이 자신의 1992년 저서에서 “주변배치방식은 낡은 방법”이라 언급했지만⁵⁰⁾, 이미 1950~60년대에도 이를 인지하고 벗어났다는 점이 확인된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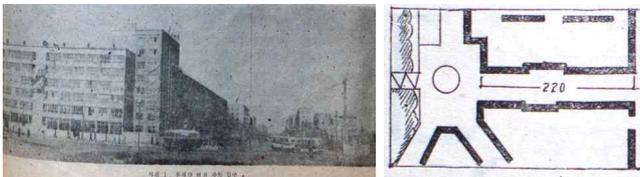


그림 10. 본평양 역전광장입구 모서리 건물(좌), 동평양 상원통로 주택 후퇴 배치 (우)(출처: 『건축과건설』1959년 4호)

더 나아가 도시차원의 경관을 소구역 배치계획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모래터(현 북새동)라 불리던 곳에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총 6번의 소구역 계획 변경이 『건축과 건설』에 소개되어 있다.⁵²⁾ 이 소구역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단계별 건

48) 한창석, 앞의 글, 39-41쪽. 첫 사례는 평양역 앞 인민군거리 끝 모서리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 6층으로 구성된 다른 건물과 독립하여 8층으로 건설한 것이며, 두 번째 사례는 동평양 상원통로 일부주택 배치방식이다. 한편 같은 시기 다른 글에서 “건축 구성에서 중심이 없 “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동살림집 가로의 모서리에 규모가 큰 “공공 건물을 배합하여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리순건, 「구획의 건물 배치에 제기되는 문제」, 『건축과건설』, 1959, 3호, 18-19쪽) 해당 내용은 그대로 동일 저자의 책인 『주택 소구역 계획』에서도 등장한다.

49) 리순건, 앞의 글, 18-19쪽

50) 김정일, 앞의 책, 142쪽

51) 한편, 「주택 소구역 계획」에는 살림집의 배치 방식에 대한 언급도 이와 관련된다. 다층살림집 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변식은 “주로 가로의 형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며(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112-113쪽) 북한에서는 1950년대 초중반 소련의 스탈린식 신고전주의 영향 하에 건설되었다. 병렬식은 “건물들을 모두 가장 좋은 방위로 향하게 함으로써 일조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은 병렬식으로 건설되었다. 다만 면적이 큰 소구역의 경우 두 배치 방식을 혼용하는 혼합식이나 “규칙적으로 건물을 배치할 수 없는 소구역”에서 적용되는 자유식도 있다. 따라서 『건축예술론』에서 “주변배치방식은 낡은 방법”이라 언급하기 전인 1960년대 이미 병렬식과 자유식이 도입되어 적극 사용되고 있었다.

52) 평양시 도시 설계 연구소 세부 계획실, 「모래터 형성 계획」, 『건축과건설』, 1965년 6호, 23-24쪽

물 배치를 변경하는 의도와 경관을 고려하면서 건축형태를 변경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첫 계획안은 소련식 신고전주의식 배치인 주변식으로 되었다가, 1958년 안에는 병렬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0년 2개의 안은 “금수산, 만수대, 칠성문 거리에서 보는 그의 ‘조감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 주요 공동살림집을 15도 정도 회전시켰다. 1961년 안에서는 건물은 15도와 더불어 45도 정도 회전된 건물의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졌다. 주로 4~5층 판상형 건물로 배치하던 것에 더해 12층 탑형 공동살림집 건물을 녹지 축에는 도입해 조형성을 강화했다. 탑형 건물은 판상형 건물과 대비되어 외부에서 볼 때 경관상 보이는 조망성을 강조하는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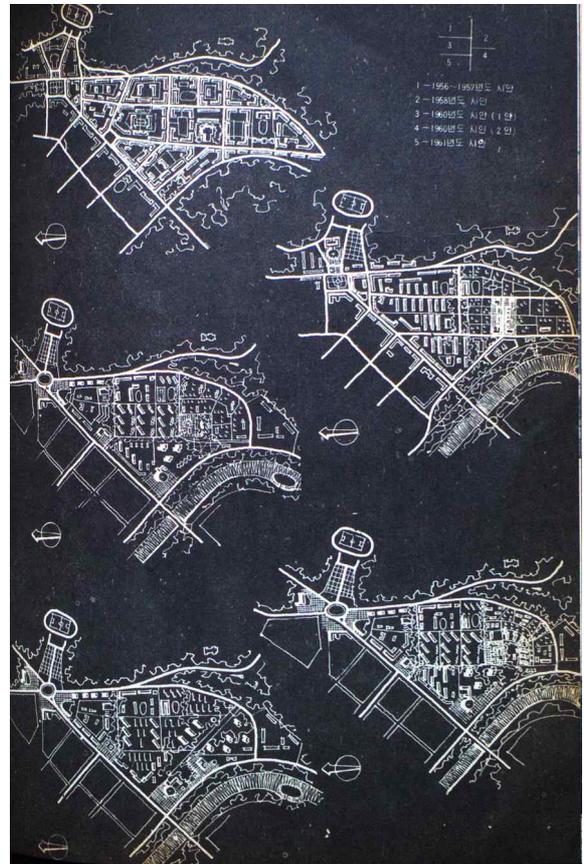


그림 11. 모래터 소구역계획 변화과정(1956-1957년 시안, 1958년도 시안, 1960년도 시안(1안), 1960년도 시안(2안), 1961년도 시안) (출처: 『건축과건설』1963년 5호)

1962년 소개된 최종 안은 이 탑형 살림집을 15층으로 높아졌으며, 공동살림집 건물의 배치 각도는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유는 명확한데 “금수산, 만수대, 칠성문 거리에서 조감 효과뿐만 아니라 인민 대회장, 천리마 동상 등을 바라볼 때와 북새 거리쪽으로 금수대 언덕을 바라 볼 때의 전개도적 효과를 최

대함으로써 높이도록 하였다.” 최종안을 자세히 보면, 위에 언급한 지점에서 소구역 내부로 향한 조망 범위를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배치와 크기가 외부 중요지점과의 시선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런 공동살림집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한 배치는, 기존에 알려진 소구역 계획의 봉사기관을 기능에만 맞게 한 배치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조망)에 따른 건물 형태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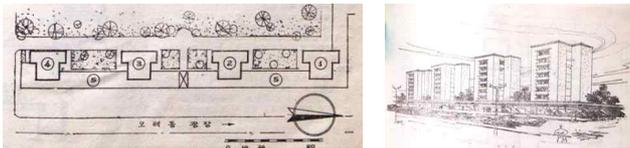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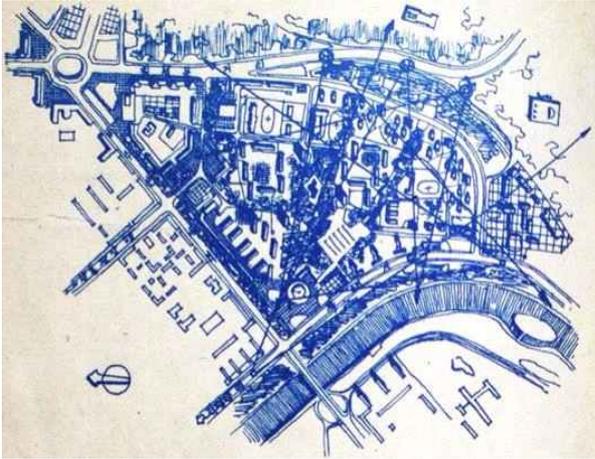


그림 12. 모래터 소구역계획 최종안(위, 점선은 탐형 공동살림집), 모래터 탐형 공동살림집 계획안(우, 1960년 계획으로 위치는 동일하며 1962년 계획은 15층으로 높아짐)(출처: 『건축과건설』1963년 5호 및 『건축과건설』1960년 7호)

가로 구성에서 공동살림집의 조형이 고려는 몇 년 뒤 동평양 문수동 계획에서 나타났다. 옛 평양성이 있던 분평양의 중심부가 김일성광장을 가로지르는 승리거리로 구성된 것처럼, 그에 대응하도록 대동강 건너편의 동평양을 문수동 광장과 주요 가로를 개발하는 계획에 공동살림집도 포함되었다.⁵³⁾ 이 가로를 매우 중시한 김일성(당시 수상)의 관심 하에 6번의 수정 후 최종안이 잡지 『건축과건설』(1965년 6월호)에 게재되었다. “문수 지역을 화려하고 웅장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광장 주변에 상징적 건물(박물관, 도서관, 체육관)을 배치하고 중심가로의 “너비를 180 미터로 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 휴식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존 가로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고 색다르게 조직”했다. 탐형 공동

살림집도 이런 가로 경관을 조성에 포함되어 있다. 즉 “주요 지점들의 변화를 살리”기 위해 “동남쪽 면에는 긴 면으로 막은 고층 건물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반대 쪽은 탐식 건물을 2~3동씩 집중 배치하면서 거리를 개방시켰다.” 그 건물의 형태는 모래터 소구역의 탐형주택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매우 넓은 가로 폭이나 건물 구성 배치 설명이 1989년 평양 대축전을 맞아 건설한 광복거리를 연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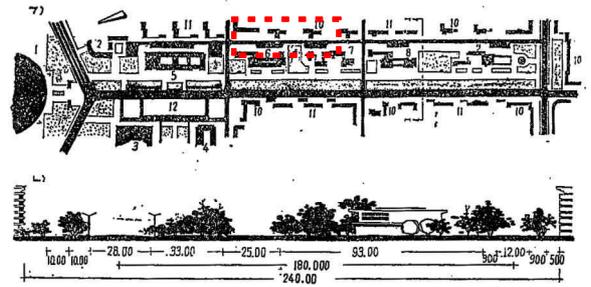


그림 13. 문수거리 계획도(점선은 탐형 공동살림집) 『건축과건설』1965년 6호(붉은 점선이 탐식 공동살림집)

다음 두 절은 이러한 공동살림집을,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에서 ‘예술적 건축’을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건축형성과 도시경관(도시형성건축과 거리형성건축)으로 비교하면서, 입체적 건축 형태와 건축논리를 검토한다.

3-3. 건축형성: 탐식 공동살림집

1960년대 도시경관으로 입체적으로 계획된 공동살림집의 공통점은 탐식 형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공동살림집이 가로로 긴 판상형으로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며 공동봉사망을 함께 이용하는 효과적인 배치로 된 것과 달리, 탐형 공동살림집은 전적으로 도시 경관에 초점을 두어, 형태적으로 도드라져 보인다. 탐형 공동살림집이 사용하여 조망 효과를 처음 시도한 곳은 동독재건단(Deutsche Arbeitsgruppe Hamhung)의 참여한 함흥시 재건에서 나타났다.

“함흥시 건설에서도 많은 새로운 의도를 볼 수 있는 바, 역전 탐식 주택 형성과 피크 거리 6층 탐식 주택과 4층 썩찌야식 주택의 배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수법으로서 다른 도시 설계 일꾼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게 되었다.”⁵⁴⁾

실제, 함흥에서 탐식주택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잡지 『건축과건설』에서 다루기 시작했다.⁵⁵⁾ 한편, 함흥

53) 김영복, 「문수동 광장 및 주요 가로 건축계획」, 『건축과건설』, 1965년 6호, 23-24쪽.

54) 한계선, 「8.15 해방후 건축 건설의 공업화에서 달성한 성과(주택, 공동 건물 건설)」, 『건축과건설』, 1960, 8호, 14쪽

55) 대표적인 예가 동독재건단(DAG)의 함흥 건설이 본격적으로 소개

에 파견된 동독재건단 건축책임자인 콘라트 뤼셀(Konrad Püschel)⁵⁶⁾이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함흥에 건설된 탑형주택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이후 기념건물의 조형적 형태가 ‘조선식’이든 ‘서양 고전양식’로 하여 즉각 인지되는 형태와 달리 반면 바우하우스에서 근대건축의 시도는 장식적 표상을 배제하고 추상적 형태를 추구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쪽에서는 대상건축의 기념비적 형태가 등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살림집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조형성이 도시 경관 차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시 경관차원의 탑형 공동살림집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추상 형태로 변화되는 출발점이다. 광복거리 살림집이나 『건축예술론』에 언급하는 ‘현대식’ 공동살림집 형태는 탑형 건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다양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 함흥 탑식 주택 사진(좌) 함흥시 주택거리 투시도(출처:『건축과건설』1960년 5호)

1960년대 말에 이미 『건축예술론』에서 나타났던 건물 형태, 즉 ‘건축형성’이라 명명된 논리가 대다수 등장했다. 특히 형태 구성 수단(대칭과 비대칭, 비례, 룰동, 대조와 은근한 차이, 척도, 질감, 색, 장식, 명암, 조명) 및 “건축효과”같은 표현들이 잡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표현들이 주택 소구역의 배치에서 개별 건물의 형태를 제안한다. 주택구역은 “건축구성요소들에 의하여 크고 작은 공간으로 나뉘는 특징”을 지니며, “건축표현상으로 구분되는 요소들의 성질을 잘 이용하여 **건축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강조는 저자)

되는 시점에 탑형주택설계 계획안이 처음 등장(『건축과건설』1960년 6호 표지 안쪽면)하며, 7호에는 함흥 탑형주택 사진과 함께 모래터 탑형주택계획 소개와 함께 이후 소련의 탑형을 포함한 고층 주택 소개가 되어 있다. 그 이후 많은 계획에 나타나며 건설되기 시작한다. 한편, 탑형 공동살림집 소개한 글이 1960년 전후로 등장하나 소련의 사례로 향배와 지형적 유리함을 언급하기도 한다.(『고층 주택 설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건축과건설』 1960, 1호 25-26쪽)

56) 뤼셀은 1926년 바우하우스의 학생으로 입학했으며, 조제프 알버스,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모홀리-나지 등 근대예술가에게 수학했으며, 2대 교장인 한네스 마이어스에게 건축을 배웠다.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건축미학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조성해 주어야 한다. 건축구성수법으로 언급된 것으로 “긴 것과 짧은 것”, “낮은 것과 높은 것”, “넓은 것과 좁은 것”, “건물의 바깥 모양이 각이한 것”,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각이한 배치수법(주택군)” 등의 표현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된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⁵⁷⁾ 뿐만 아니라 고층 살림집의 배치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도 소구역 중심에 두는 방식 혹은 가로변에 두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모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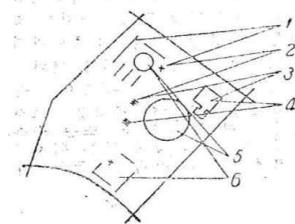


그림 4. 건축구성수법
1-긴 것과 짧은 것, 2-낮은 것과 높은 것, 3-넓은 것과 좁은 것, 4-건물의 바깥모양이 각이한 것, 5-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6-각이한 배치수법(주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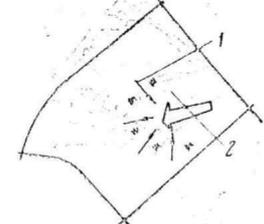


그림 5.
1-주택건물에서 건물을 열어주고 소구역 주변에서 고층건물의 조형효과를 높인다.(중분한 주변공간을 조성), 2-소구역건축구성을 연결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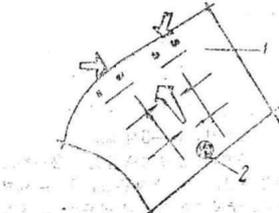


그림 6.
1-소구역건축구성을 가로 건축구성과 일치시켰을 때, 2-소구역중심(기능에 맞추어 주변공간을 조성해 주든가 또는 고층건물을 얹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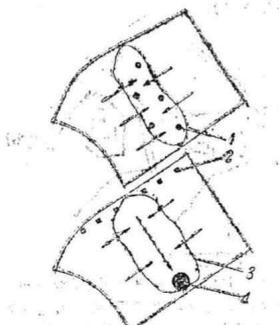


그림 7.
1-고층건물이 소구역안공간에 있을 때, 2-고층건물이 가로변에 놓였을 때, 3-공간명역, 4-소구역중심.

그림 15. 건축구성수법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출처: 건축과건설 1967년 8호)

3-4. 도시경관: 도시형성건축과 거리형성건축 논리 또한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에 나오는 도시차원, 즉

57) 리재선, 「주택소구역의 건축구성」, 『건축과건설』, 1967 8호, 27-29쪽. 다음과 같은 표현도 나타난다. “개별주택일 때는 척도가 작은 요소들과 굵은 요소들인 소건축 시설물들과 기본 건물들을 정원-예술적 방법으로 잘 조화시켜야 한다.”

‘도시건축형성 및 거리형성건축’ 논리의 상당부분도 이미 1960년대 『건축과 건설』 잡지에서 보인다.⁵⁸⁾ 핵심 개념인 “륵곽”을 비롯한 도시경관 관련 내용이다. 륵곽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공간에 얻어지는 선”으로 “도시의 수직건축선”으로 정의하는 점이 동일하다.(그림 16) “도시륵곽창조에서는 건축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러저러한 투시적인 효과와 원근관계, 색조화와, 그림자 효과, 건축물의 장식효과”를 통해 “건축적 효과”를 낸다. 이런 건축적 효과는 거리별 차이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같이 지적되는데, 그 거리구분도 1990년대 『광명대백과사전』과 거의 동일하다.(그림 17 참고)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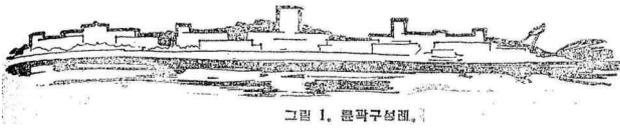


그림 16. 륵곽구성 (출처: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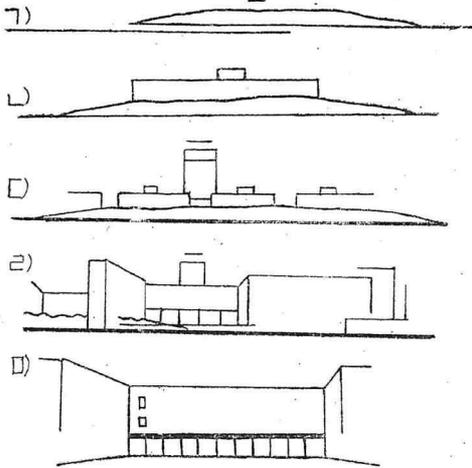


그림 4. 보는 거리에 따르는 륵곽의 건축적 영향.

가-2500m 이상인 경우, (도시의 전체 륵곽만 보인다.)
 나-2000m인 경우, (건축군의 전체 륵곽, 같은색으로 보인다.)
 다-1500m인 경우, (개별건물의 륵곽, 밝은색만 보이며 투시효과가 없다.)
 라-1000m인 경우, (개별건물의 기둥, 문, 기본색 등이 보인다.)
 마-500m인 경우(모든 상세, 모든 색들이 다 보인다.)

그림 17. 보는 거리에 따르는 륵곽의 건축적 영향(출처: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한편, 거리에서 륵곽은 그 륵곽중심과 보조중심(변화부분) 그리고 시작과 끝부분(완성부분)으로 나뉘 변화

58)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28-31쪽

59)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앞의 글, 28-31쪽

를 주어 “건축적 표현과 효과를” 높게 한다. “일반적으로 그 도시의 기준층에 드는 건물들과 고층건물들의 대조, 건물의 너비와 높이의 비가 륵곽창조에 많은 영향을 준다.” 광복거리의 원형 살림집 형태를 예견하는 표현도 나타나는데, “고층건물이 원형일 경우에는 그의 질감으로 하여 높이가 같은 사각형 고층건물보다 훨씬 높이가 보인다.” 도시구성을 이러한 방식에 대한 간명한 표현이, 바로 “건축예술적 수법”이다.⁶⁰⁾ 김정일의 『건축예술론』과 동일한 관점으로 건축을 예술적으로 바로 보는 시각이 1960년대 말이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예술적인 수법을 광복거리뿐만 아니라 이미 1950~60년대부터 이미 구체적인 논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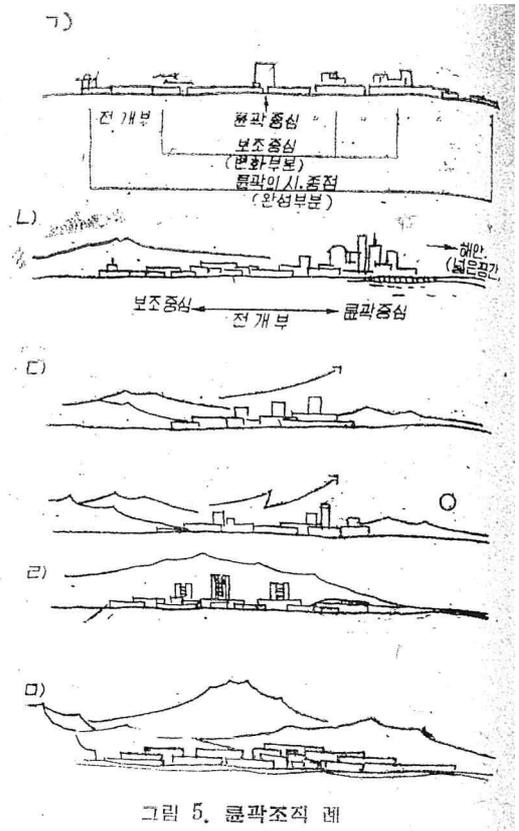


그림 5. 륵곽조직례

그림 18. 륵곽 조직의례(출처: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그런데, ‘건축예술’의 논리는 유사하나 탐형 살림집과 광복거리 살림집 사이의 형태적 간극은 크다. 1960년대 공동살림집의 단조로움이 지닌 도시경관측면의 문제 제기과 탐형 살림집으로 가능성을 살펴봤다면, 그 사이 다양한 도시적 형태 시도는 그 이후인 1970~80년대 연구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 기술적인 성과, 내부 평면구성 방식의 변화, 외부 형태 실험

60)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앞의 글, 31쪽

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실제 문수거리, 낙원거리 살림집 등에서 탑형 살림집과 예술적 건축의 논리가 진화되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므로 추가 연구로 남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북한 건축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저자-김정일을 벗어나 공동살림집을 분석했다. 즉, 북한 건축에 대한 통념은 김정일로 상징되는 인물이 “영도자”로서 건축방향을 제시했다거나 “독재자”로서 일방적으로 건축을 바꿨다는 관점 뒤에 가려졌던 북한 건축의 내적 층위를 드러냈다. 북한에서 건축논의는 김정일의 『건축예술론』과 평양축전 시기 ‘현대적’으로 조성된 건물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비중이 광복거리 살림집이다. 여기서 김정일은 과거 개별 건물의 형태를 ‘조선식’으로 한 것과 달리 새로운 방향인 ‘현대식’ 립체적 조형으로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언급된다.

그런데, 본 연구가 도출한 것은 ‘현대적’ 건축논리 혹은 건축예술론의 이론이 1950~60년대에 이미 배태되었다는 점이다. 즉, 공동살림집 건설에서 도시경관의 효과를 주기 위해 건축 조형 형태가 살림집에 도입되었다. 그래서 전후 재건 시기에 ‘조선식’ 기념비 건축미학과 동시에 도시경관차원의 ‘현대식’ 미학이 동시에 고려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심지어 ‘현대식’ 건축을 지칭하는 “건축예술”이란 표현 및 논리도 이 시기에 이미 등장했다. 따라서 단순 도식인 “조선식”과 “현대식”의 시간대별 전환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배태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식”이 배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출발이 되는 탑형 공동살림집이 처음 북한에 등장한 것은 독일재건단(DAG)이 주도한 함흥에서 나타났다는 점도 드러냈다. 따라서 북한에서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동살림집의 다양한 형태 및 배치는 탑형 건물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광복거리 살림집에서 실험된 조형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광복거리 살림집 건설 직후 평양 남쪽에 위치한 통일거리(1993년 7월 완공)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로 같은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건설이 거의 없었던 고난의 행군(1994~2000) 이후 북한 평양에서 건설되는 공동살림집은 점점 더 조형적인 형태로, 더욱 높은 초고층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에서 공동살림집에 나타나는 조형성이 중요하게 취급

된다는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북한 건축을 이해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1. Gunsoo Shin, Inha Jung,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in Journal of Architecture, 21(2):159-180
2. 김영복, 「문수동 광장 및 주요 가로 건축계획」, 『건축과 건설』, 1965년, 6호, 23-24쪽.
3. 김유진, 「그이는 건축가들의 자애로운 스승」, 『조선건축』, 1995 4호, 5-7쪽.
4. 김지향, 「광복거리살림집건축형성」, 『조선건축』, 1990 3호, 78-79쪽
5. 김정일,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6. 리순건, 백완기, 『주택 소구역 계획』, 1963년, 국립건설출판사
7. 리순건, 「구획의 건물 배치에 제기되는 문제」, 『건축과 건설』, 1959 3호, 18-19쪽
8. 리재선, 「주택소구역의 건축구성」, 『건축과건설』, 1967 8호, 27-29쪽.
9. 리현덕(편집), 『주체건축의 대화원 3』, 문예출판사, 1990
10. 미셸 푸코, 장진역 역, 「저자란 무엇인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0
11. 리형, 「건축의 영재」, 『천리마』, 1985년 7호(24-25쪽) 및 8호(41-43쪽)
12. 배세혁, 궁석철, 「해방후 년대별 우리나라 살림집의 건축마감장식 및 마감색변화발전의 특징」, 『조선건축』, 2013년 4호, 49-50쪽
13. 서명수, 「20세기 후반 북한 건축의 ‘주체건축’에 대한 비평적연구-『건축예술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8, vol.34, no.6, 통권 356호
14. 전만길, 「전환의 시발점」, 『조선건축』 1993 4호, 4-7쪽.
15. 정인하, 김민아,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9, vol.35, no.10, 통권 372호
16. 최웅술, 「건축적다양성보장문제의 독창적인 해결」, 『조선건축』 2006 4호, 33-37쪽
17. 평양시 도시 설계 연구소 세부 계획실, 「모래터 형성 계획」, 『건축과건설』, 1965년 6호, 23-24쪽
18. 한제선, 「8.15 해방 후 건축 건설의 공업화에서 달성한 성과(주택, 공동 건물 건설)」, 『건축과건설』, 1960 8호, 14-17쪽
19. 한창석, 「평양시 가로 구성에 대한 나의 의견」, 『건축

20 논문

- 과건설』, 1959년 4호, 39-42쪽
20. 「고층 주택 설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건축과건설』 1960, 1호 25-26쪽
 21. 『광명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11
 22.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28-31쪽
 23.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5
 24. 「평양의 모습」, 『조선건축』 1995 4호, 9-15쪽.

접수(2023.04.15.)

수정(2023.09.26.)

게재확정(2023.10.14.)